

# 현대사회가 낳은 '문제' 불교에서 '답' 찾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주최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부처님은 자연(생명·생태)을 해하는 것을 금기시켰으며 자연 환경 속에서 지내는 삶을 강조했다.”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 데미언 키온 교수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동국대에서 열린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의 덕(德)을 통한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키온 교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환경문제, 생명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불교적 지혜와 덕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키온 교수는 '덕 윤리학과 환경'이란 논문을 통해 "덕 윤리학은 행위보다 행위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규범이나 행위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인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불교의 덕은 욕망의 중보시와 인욕이다"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덕은 비해악과 비폭력을 의미하는 불교의 불살생이다"고 주장했다.

또 키온 교수는 "불교와 덕 윤리학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 등의 논쟁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지는 의문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과 아울러 실천적 이성을 이룰 방법론적인 일련의 법칙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온 교수는 교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연질서에 대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고 있다"며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인공유산, 인락사 등의 문제는 의료윤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불교의 덕 윤리학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대회에서 '빈곤과 불교적 생활 방식'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스웨덴 생태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여사는 단절된 사회와 세계적 빈곤에 대한 치유법을 '합일과 상호의존'이라는 불교의 1인칭적인 접근법을 통해 계·정·혜 삼학을 융합시킨 이론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화된 경제'에 대해 헬레나 여사는 '모든 사회가 일괄적으로 집중 관리되는 경계에 의존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미디어 시스템을 공유하며 심지어 사고의 과정도 같은 세계'라고 정의했다.

덧붙여 헬레나 여사는 "불교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징후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들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경제적 명령에 뿌리박고



데미언 키온	덕과 실천적 이성 이룰 방법론적 법칙 필요
노르베리 호지	일괄·집중 관리되는 획일화된 세계화 비판
요한 갈통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 '도덕적 대상'

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기업적 제도로 만들어진 세계 경제적 체계보다는 우리 이웃들과 주변의 생명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한 깨달음의 반영이다"고 제시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은 그의 논문 '심층생태학, 심층문화 그리고 위기사회-평화와 불교'를 통해 생명의 범위를 인간에서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 각 종교의 가치관의 한계와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성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체도 도덕적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측면까지도 고려한 불교가 생명·생태·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을 주제로 한

제2분과 발표장에서 안옥선 교수는 네스의 심층생태학에서의 동일성과 불교의 동체자비의 유사성을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론 △자리아타의 원리 등을 근거로 연구한 논문 '심층생태학의 동일성과 동체자비'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심층생태학에서의 자아실현과 불교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일성과 동체자비의 실천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동일성과 동체자비를 통해서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론은 존재실상에 합치되는 삶을 구현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최고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남대 이종표 교수의 '불교와 일관시스티마'를 고려대 양형진 교수의 '지식기반 사회와 자연세계에 대한 불교적 네트워크 이론' 동국대 윤영태 교수의 '포스트

모더니티와 생태불교학' 미국 위스콘신대 리타 그로스 교수의 '실타레-불교와 에코페미니즘' 등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인 '환경·생태' 문제를 조명하고 지식기반에 부응하는 '생명과 평화' 실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총 4개 분과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대학 12명과 외국대학 9명이 참가했다.

각 분과는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제1분과)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제2분과)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제3분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제4분과) 등 생명·생태와 응용불교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노병철 기자 sasaman@buddhapia.com

### ■ '지식기반...' 대회참석 외국 석학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보존과 개발의 대립된 문제를 지적한 <오래된 미래(1992)>의 저자, 1946년 스웨덴 출생인 그녀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철학, 심리학 등을 전공했다. 1980년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조직을 만들었으며 1986년에는 대안적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데미언 키온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 교수. 1951년 영국 출생으로 1992년 옥스퍼드에서 초기불교유리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교 생명·윤리 전문가로 불교계에 생명·윤리를 일깨우는 역할에 자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윤리학의 본질(1992)> <불교와 생태학(1992)> 등이 있다.



△요한 갈통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이자 평화운동가. 1930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한 한반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하와이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의 제국주의 이론과 종속이론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소개한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는 특히 주목받는 개념들이다.



△이안 해리스

영국 세인트 마틴대 교수. 캠브리지대학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기 대승불교에 있어서 중관과 유식이 연장선(1991)> 등의 저서와 불교와 생태적 윤리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영국 불교학협회 창립멤버이며 현재 20세기의 불교와 정치 및 불교생태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 “정통 조사선은 선문화의 재창조”

한국선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정통 조사선은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한 선(禪)문화의 재창조입니다.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듯이 선문화를 통해 지혜를 얻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26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린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평래) 2006 춘계학술대회에서 동국대 선학과 교수 조종호 스님은 '선문화의 이해를 위한 선 사상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원전문대 이범수 교수의 '불전에 나타난 정신장애와 간병' 부산대 김준호 교수의 '부다의 욕망론' 서울보건대학 송위지 교수의 '장아함경 세기경의 지옥품에 관한 연구'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범수 교수는 논문을 통해 '마하승지옥과 <상계서>에 의하면 부처님은 간병인 계를 제정해 악법, 욕실세법, 승상좌법 등 엄격한 간병 규칙을 적용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예외 조항을 두었음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자의 명예를 위해 병을 소문내지 못하게 하는 계를 두었음 정도 계율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 기사남서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는 쉽니다.

**( 불자정보 )**

- 규격: 5×5cm=50,000원
- 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02) 2004-8213~6 / (02) 732-1522 (直)
- 전송: (02) 737-0696
- e-mail: jabi1522@empal.com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 대지: 90평, 건물 1층 45평
- 2층 법당(독채) 15평
- 특징: 의성 탑산온천근교
- 가액: 3억5천만원
- 답사 후 가액절충가능
- 054)832-2057
- 011-805-205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주시
- 임법당 40평
- 부지 650평
- 시내에서 6km (5분거리)
- 가액: 6천5백만원
- 054)632-1012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방안, 지장보살 율불 297분
- 법당의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폭팔해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 010-2304-222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 대지: 90평, 건물 1층 45평
- 2층 법당(독채) 15평
- 특징: 의성 탑산온천근교
- 가액: 3억5천만원
- 답사 후 가액절충가능
- 054)832-2057
- 011-805-205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건물: 평수 29평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삼존불,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018-315-0108

**포교당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부지: 1200여평
- 건물 5동
- 법당, 사신각, 주지실, 요사 2동, 심야보일러
- 가액: 2억7천
- 032)374-6494
- 011-790-919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믿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운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함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1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사찰안내**

- 종교부지 및 답: 1026평
- 가액: 10억 6천만원
- 위치: 오산 ↔ 안성 국도 (4차선 확장공사중) 1km 접한 곳으로 오산 I.C 오산시청 10분거리

동탄신도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발전성 최고의 수행 환경을 갖춘 사찰임  
법당, 주방용 집기 등 일체 양도함

**010-6809-9294**